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

February 27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Batteries Included?
송민철, from The Economist
- 5** Al-Waleed Sells Airbus A380 to Invest in Middle East Firms
김주영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7** A Red Light from Greenlight
김영봉, from The Economist
- 10** Venezuela's Double-Edged Devaluation
정근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12** The Bank of Japan Tests the Limits of Shinzo Abe's Economic Power
김령래, from The Economist

Cover Stories & Special Report

- 16** Nascar Is Helping Automakers Sell Regular Cars Again
진나현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20** What Defines Success in the Mobile Race?
임소연, from Knowledge@Wharton

Batteries Included?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2.02\)](#)

* 요약자: 송민철 (sagas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리튬-이온 전지, 차세대 전지

“전지혁명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활발한 연구”



□ **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지에 관한 기술은 국가, 기업, 대학을 막론하고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**


- 미국의 경우, 에너지 부서에서 5년 안에 5배 강력하고 5배 저렴한 전지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
- 미국의 아르곤 국가 연구소는 전지의 소재에 대한 통합 참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중
 - 이는 전지의 특수한 속성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

□ **현재는 리튬-이온 전지가 대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점도 존재**

- 리튬-이온 전지는 지난 20년간 최고의 전지였으며 2020년까지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
 - 현재 전기 차와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의 주된 재료로 사용됨
- 리튬-이온 전지는 기능 및 가격 면에서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풍부
 - 리튬-이온 전지의 저장량은 2배로 증가, 비용은 30-40%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
- 하지만 쉽게 과열이 되어 타버리는 경향도 있음
 - 최근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비행 중 화재의 원인이 리튬-이온 전지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추정되기도 함

□ **리튬-이온 전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전지들로 리튬-공기 전지, 다원자가 전지, 유체 전지가 개발 중이며 이러한 종류의 전지들이 전지 기술의 혁명을 이끌 전망**

- 리튬-공기 전지는 가장 유망한 차세대 전지로, 에너지 농도가 매우 높지만 충전을 위한 화학반응이 어려움

- 전해질로 대기 중 산소를 사용하여 배터리의 무게를 줄임
 - 매우 심한 가연성 소재이므로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
- 다원자가 전지는 마그네슘, 알루미늄 보다 2-3배의 에너지 저장가능성을 지녔으며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전지 내 전하이동이 어려움
-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질들의 발견이 요구됨
- 유체 전지는 매우 큰 전지이며 기존에 저장할 수 없었던 태양력, 풍력 에너지 등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나 전기분해로 인한 단점이 존재
- 또한 물을 기반으로 한 전해분해로 인해 생산할 수 있는 전압이 한정됨 

Al-Waleed Sells Airbus A380 to Invest in Middle East Firms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2.14\)](#)

* 요약자: 김주영 (kimjy21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알 왈리드, 투자 확대

“사우디 알 왈리드 왕자의 적극적인 투자 행보”

□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진 사우디 아라비아 알 왈리드 왕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음

- 알 왈리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이자 투자회사 '킹덤 홀딩'의 대표로, 세계 14위의 부자로 알려져 있음
 - 그는 약 213억 달러(한화 약 23조 원) 규모의 자산과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7%가량을 소유
 - 지금까지 약 30억 달러(한화 약 3조 5천억 원)를 기부한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도 알려져 있음
- 또한 그는 지난 12월 약 4억 8,500만 달러를 들여 초호화 A380기를 구입한 바 있음
 - 알 왈리드 왕자의 A380기는 터키탕과 콘서트홀, 홀로그램 영상 회의실 등 초호화 시설을 구비


□ 이러한 가운데 알 왈리드 왕자는 최근 본격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전용기인 A380기를 판매

- 알 왈리드는 전용기를 판 수익금을 중동지방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투자확장에 사용하기로 결정
- 또한 그는 평소 IT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트위터에 3억 달러를 투자
- 애플과 뉴스코프, 홍콩 디즈니랜드의 지분도 보유하며 투자를 확장

□ 게다가 알 왈리드 왕자는 중국판 아마존으로 알려진 360바이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

- 360바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12.6%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
 - 무료배달과 품질보증 등의 특전으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
- 알 왈리드 왕자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360바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로 결정
- 킹덤 홀딩의 아메드 할라와니 이사는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고성장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자사의 투자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

□ 알 왈리드 왕자의 투자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

- 그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맞춰 전자상거래 및 관련 기술 업체에 투자를 지속
- 이번 알 왈리드 왕자의 투자에 따라 세계 최대 인터넷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인 지 이목이 집중됨
- 또한 중국에 이어 중동의 기업들에는 어떠한 투자가 이루어질 지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

A Red Light from Greenlight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2.08\)](#)

* 요약자: 김영봉 (saeruca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애플, 아인혼, 팀 쿡

“신임을 잃은 애플,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”

□ 1990년대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경험 이후, 애플은 주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유를 선호해왔음

- 스티브 잡스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데에 인색했던 것으로 유명
 - 생전 “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상한 일”이라고 언급
- 주주들은 애플이 돈다발을 쌓아두고는 쓰지 않는다고 비난하며,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의 개선과 제대로 된 배당을 요구해 왔음
- 이러한 주주들의 지속적인 비난의 결과로, 지난 2월 7일 팀 쿡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애플의 현금 보유량은 계속 증가
 - 애플의 영업 현금흐름은 230억 달러에 육박

□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오는 27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발의

- 보통주는 2.3%의 배당금을 받는데 비해 우선주는 4%의 배당금을 받음

- 애플의 제안은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에 주주들의 투표를 의무화하자는 것을 의미


□ 이에 대해 미국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인혼 회장은 거세게 비판하며 애플의 정관변경 추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

- 아인혼 회장은 애플의 우선주 발행 조항의 삭제 제안이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
- 게다가 아인혼 회장은 애플이 '공황기(Depression era)'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며 비난
 -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은 증권에만 투자하기 때문
- 오랫동안 애플의 보수적인 현금운용에 불만을 품어온 주주들 또한 아인혼 회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

□ 팀 쿡은 아인혼 회장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였지만, 애플이 이익배당에 인색한 데에 더해 우선주 발행마저 꺼리자 주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름

- 팀 쿡은 애플 이사회가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
- 그러나 현재 애플은 보유한 순 현금만 1,370억 달러(한화 약 150조원)에 이르면서도, 여태 주주 이익 배당에 인색해왔고 이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은 커져 왔음
-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최근 주가까지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분노는 한층 심화됨

□ 그러나 아인혼의 고소로 인해 반응이 뜨겁자, 애플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

- 팀 쿡을 필두로 한 애플의 이사회는 공표한 대로 배당금과 주식 환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줄 것으로 예상
 - 애플은 당장 지난해 약속했던 45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다음 주에 풀 것을 분명히 밝힘
- 애플이 델의 선례를 따름으로써 인기를 급속도로 잃을 것 같지는 않으나, 그렇다고 애플이 쥐고 있는 돈다발을 순순히 풀어줄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음
- 애플과 아인혼의 이러한 갈등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사이에 커져가는 긴장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 

Venezuela's Double-Edged Devaluation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2.15\)](#)

* 요약자: 정근우 (monhghg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차베스, 평가절하

“베네수엘라 자국통화 평가절하의 양면”

□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32%에 달하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

-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남아메리카에서 4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 바가 있는 국가
- 차베스 대통령의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2003년 고정된 정부고시 환율정책을 도입한 이래 다섯 번째로 실시됨

□ 불균형한 수출·수입 의존도와 막대한 공공지출, 그리고 암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

- 총 수출의 94%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,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원유 가격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
- 또한 생필품의 30%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,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에도 70% 이상 비율의 수입 부품을 필요로 함
- 암시장의 통화는 최근 달러 저평가로 인해 공식통화의 세 배 가치에 달했으며, 남미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공공지출은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킴


□ 이번 통화 평가절하는 GDP의 15%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

- 현지 컨설팅업체 에코아날리티카에 따르면, 새 환율을 적용할 경우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부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 감소효과가 나타날 전망
- 또한 달러로 환산한 베네수엘라 국가부채가 4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줄면서 국채발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

□ 하지만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기존 차베스 지지층의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

- 이미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20%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그 수치가 25%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
- 환율인상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빈곤층이 20%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-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차베스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존재

□ 또한 작은 평가절하 폭과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심 수출구조로 인하여 통화 평가절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

- 베네수엘라의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약 19볼리바르로 거래되고 있으나, 공식 환율의 경우 이번 평가절하 폭을 감안해도 약 6.3볼리바르에 불과
- 일반적으로 환율인상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지만, 베네수엘라의 경우 수출증대 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임
 -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4%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

The Bank of Japan Tests the Limits of Shinzo Abe's Economic Power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2.01.26\)](#)

* 요약자: 김령래 (rlafudf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일본은행, 아베 총리**

“일본은행의 반대에 부딪힌 아베노믹스”

□ 일본의 새로운 총리인 아베 신조의 경제정책은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음

-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일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은행(Bank of Japan)의 독립성을 제재할 것을 선포
- 일본은행이 정부적자를 줄이고 자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을 지지
 -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"일본이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첫 번째 정부"라고 표현

□ 그러나 아베 총리의 거침없는 경제정책에 일본은행은 반발

- 처음으로 2%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설정하고 개방형 자산구매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일본은행이 기존 입장에서 큰 양보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
- 또한 일본은행은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
- 심지어 일본은행은 재정정책이 유지 가능할 정도만 되어야 한다는 은행의 오랜 믿음을 토대로 아베의 경제정책 중 재정 확대를 제재하려 함

□ 이러한 일본은행의 태도는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음

-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2013년과 2014년 잠재적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 이전에 했던 평가 지수와 큰 변화가 없음
- 일본은행의 반발은 무제한적인 통화완화에 대한 희망을 낙담시킴
 - 개방형 자산구입은 2014년까지 시작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규모는 이미 가지고 있던 101조 엔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됨
 - 일본은행은 월 13조 엔 구입을 주장하지만, 이것이 쿠폰으로 상쇄되면 다음 해 순증가액은 10조 엔일 것이며 이는 2011, 2012년보다 적은 수준
-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임

□ 일본은행의 자산구매와 정부의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적절

- 현재 민간 수요가 적기 때문에 통화 완화정책만으로는 GDP를 크게 상승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
- 한편, 일본은행의 자산구매는 민간 수요를 자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- 1월 초 일본 정부는 10.3조 엔의 재정확대 패키지를 열었으며,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회계연도에서 2.3%의 성장 결과를 보일 전망

□ 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은 통화와 재정의 구조적인 처방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아베노믹스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판단

- 일본 경제는 20년 동안 GDP와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침체기이며, 이러한 상황은 디플레이션의 고착화와 부채의 증가로 심화되고 있음
-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할 때보다 장기적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전망


□ 심지어 아베 총리가 진행중인 정책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은 정책 협정의 일부 요소를 환영할 것

-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확고히 하고, 아베 총리와 일본은행 총재에 의해 꾸준히 검토될 예정
 - 구조적 개혁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정부 문서의 일부로 기록됨
- 정책은 규제완화를 포함할 것이며 성장전략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약속은 체계적으로 계획됨
 -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과 같은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여성 및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

□ 다행히 일본은행 총재의 교체로 곧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 데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

- 4월 8일에 현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며, 아베 총리의 자민당에 의해 총재 후보로 임명된 적이 있던 토시로 무토로 가 차기 총재로 유력
-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의지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는 총재로 교체를 단행할 것

□ 그러나 아베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엔저 현상은 타국 정부들로부터 불만을 살 것

- 아베 정부는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타국 정부의 채권을 구입할 것이고 이에 엔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
- 수출 경쟁력을 위한 엔화 약세는 결국 타국의 무역수지 구조를 악화시키게 되어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됨 

Nascar Is Helping Automakers Sell Regular Cars Again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2.14\)](#)

* 요약자: 진나현 (skgus128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나스카, 제네레이션 6**

“양산차 판매 증진에 다시 주력하는 나스카”

□ 미국에서 NFL에 이은 제2의 스포츠 이벤트로 각광받았던 나스카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임

- 본래 나스카는 다른 레이싱 경기와는 차별화된 ‘스톡카 경주대회’, 즉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차를 개조한 자동차 경기로 큰 인기를 끌어왔음
 - 초창기에는 엔진, 서스펜션, 타이어 모두 양산차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
- 특히 시속 200마일이 넘는 빠른 속도와 과격한 경기에 팬들이 열광했으나, 지속되는 사고로 안전 규칙을 강화하며 그 인기가 하락
 - 주 소비층인 2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두드러지자, 스폰서들 역시 나스카 후원을 중단

나스카 (Nascar)

미국 내 대표적인 자동차경주 대회로 F1(Formula1), 카트(CART)와 더불어 세계 3 대 자동차경주 대회로 꼽힌다. F1 대회의 차량이 전용 경주용차인 것과 달리, 나스카 차량의 겉모습은 세단 형태다. 그래서 미국 개조자동차 경주대회라고 한다. 나스카 경기를 관람하는 인파는 20 만~30 만 명에 이른다. 특히 나스카는 팬 중 85%가 중산층이고, 팬 중 70% 이상은 나스카를 후원하는 브랜드로 제품을 바꿀 만큼 마케팅 효과가 뛰어난 스포츠 대회로 꼽힌다. 포천이 5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'스폰서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'로 선정되기도 했다. '움직이는 광고판'인 차 한 대에 달라붙는 스폰서비가 2500 만 달러에 달한다. 라이선스 상품으로만 매년 2 조원(21 억 달러)을 벌어들인다.

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

□ 이에 나스카는 트렌드를 바꾸려는 시도로 '제네레이션 6'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

-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2월 24일, 데이토나 500에서 팬들은 새로운 연식 디자인을 적용한 차들을 보게 될 예정
- 나스카의 대표 브랜드인 포드 퓨전, 도요타의 캠리, GM의 쉐보레 SS가 그 주인공

□ 과거 나스카는 "일요일에 승리하고, 월요일에 팔아라"라는 전략을 고수

- 그 당시 드라이버들은 경기 전, 상품들이 진열된 곳으로 가서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를 선택
- 드라이버들이 선택한 차가 트랙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 해당 자동차 제조자들 역시 그들과 더불어 승리했다는 의미를 가짐
 - 1966년 플리머스는 승리감과 자랑을 담아 "승자와 함께 타세요!"라는 뉴스 광고를 함
 - 쉐보레의 부사장인 짐 캠벨은 "큰 레이스에서의 승리는 곧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"이라고 언급
- 자료에 따르면 무려 71%의 나스카 팬들이 나스카 광고 스폰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, 경기 결과의 영향력이 얼마나

큰지를 알 수 있음

□ 그러나 보다 강력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나스카의 상반된 욕망이 오히려 나스카를 스톡카 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함

- 나스카는 드라이버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면서 안전 장치 강화와 차량 새시의 대형화를 실시
 - 2001년, '데이토나 500'에서 7연승을 한 전설의 드라이버인 데일 언하트가 사망한 이후 안전을 우선시하기 시작
- 덕분에 그 이후 사망 사고는 없었으나, 경기의 박진감과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많은 팬들은 재미를 잃어버렸고 나스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

□ 이에 나스카는 개선을 거듭하여 과거의 유명세를 회복하고 스폰서의 후원을 재개하고자 노력

- 현재 나스카 스프린트컵에서 달리고 있는 머신은 한층 발전된 기술의 결과물이며 나스카는 이를 'Car of Tomorrow(COT)'라고 부름
 - COT는 이전의 스톡카에서 고집하였던 카뷰레터 연료분사 방식을 탈피
 - 현대 기술에 알맞은 전자분사 방식으로 엔진을 변경하고 공기역학, 안전 및 기타 성능을 한층 발전시킴
- 이러한 COT 머신은 팬들에게 더욱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선사하기 위해 경량화되고 다운포스가 향상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짐

□ 오늘날에도 레이스 경기는 자동차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음


- 경기 때마다 "샤우터"들은 매년 15명 이상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차를 추천해,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
 - 포드 이사는 보통 경매할 때 자동차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온다고 언급

- 도요타, 포드, 쉐보레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네레이션 6 라인에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음
- 그러나 최근 8,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, 단지 3%만이 모터스포츠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
 - 소비자들은 친구들의 조언, 온라인 정보, 직접 본 경기 결과와 광고들을 모두 고려

□ 이에 따라 올해 제네레이션 6를 동시에 선보이는 세 자동차 회사는 디자인과 홍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

- 지난 3년 동안, 이들은 양산차 특유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드래그 레이스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
- 나스카의 새로운 규정 덕분에 자동차 생산업자들은 신모델을 내놓는 것이 수월해짐
 - 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, 레이스에 내보내고 싶은 신제품 라인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됨
- 쉐보레는 지난 1996년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후륜구동 차량을 선보임
 - 후륜구동에 V8엔진을 탑재하여 일반 도로와 트랙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편의성과 공간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활용도를 높인 것도 특징

□ 나스카 측에서는 이미 신차가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

- 나스카의 조사에 따르면, 트랙에 오른 자동차의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답한 인원이 지난 10월 41%에서 현재 58%로 급증
- 쉐보레 캠벨은 새로운 슬로건으로 “일요일에 우승하라. 차, 트럭, 부품은 월요일도 팔고 그 다음날에도 팔아라” 를 제시 

What Defines Success in the Mobile Race?

* 기사출처: Knowledge@Wharton (2013.02.13)

* 요약자: 임소연 (cian9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모바일 전략, 플랫폼, 수익창출

“모바일 시대에서 기업에게 주어진 과제”

□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고객과의 소통 수단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

-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모바일 부서를 따로 마련하는 등 모바일 전략에 집중
 - 현재 미국 성인의 85%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중 56%가 인터넷에 접속, 43%가 앱을 다운, 29%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정도로 모바일의 영향력이 증가
-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소매업체, 음식점 등 서비스 기업의 경우 모바일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
- 페이스북이 모바일 앱의 성능 향상에 집중한 점이나 구글의 애드워즈가 모바일 전략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음

□ 기업들은 모바일에서만 실현 가능한 독특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음

- 이동가능성, 인터넷 연결, GPS 등이 모바일에서 존재하는 대표적인 특징
- 한편, 데스크탑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 모바일과 데스크탑,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음

- 어떠한 플랫폼을 선택하든지 간에 사용자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

□ **일단 모바일 전략을 처음 수립할 때는 사용성을 고려해야 하며, 체계적인 고객 분석과 기술 이용이 필요**

-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
- 고객들이 자사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플랫폼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
 - 컴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바일의 스크린 크기를 고려하면서 앱의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함
- 또한 GPS 기능을 이용해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하여 모바일 전략에 반영해야 함

□ **모바일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는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성공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**

- 기업의 종류에 따라 모바일 전략을 이용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각기 다양
-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
 - 구글, 페이스북,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추구하는 형태
- 또한 소매업체에서는 매출을 높이거나 거래 속도를 신속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음

□ **기업에 따라 모바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한 상이**

- 광고 수익의 경우 컴퓨터와 모바일의 광고 상품을 합치면서 합쳐 팔기, 또는 끼워 팔기 식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증

가

- 페이스북과 구글은 최근 컴퓨터와 모바일 광고 상품의 구분을 없앴

– 소셜 게임 업체 징가는 7천 2백만이 넘는 유저들을 이용해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게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수익을 창출

□ 한편 처음부터 모바일 플랫폼에 집중한 기업과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전환한 기업에는 전략상에 차이점이 존재

-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기는 기업은 모바일의 제한된 스크린 크기와 처리 능력 때문에 필수적인 기능만을 모바일에 구현
 - 페이스북의 경우 기능이 축소된 모바일 페이스북을 유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
- 처음부터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발한 기업은 PC 버전에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
 - 최근 PC 버전을 만든 사진 기반 SNS 기업 인스타그램이 그 사례
- 일부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 페이스북과는 달리 모바일로 출발한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출발점에서 더욱 유리

□ 전문가들은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델은 모든 플랫폼을 고려한 시스템을 갖춘 모델이라고 주장


- 대표적 예시인 트위터는 PC부터 스마트폰, 피쳐폰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
 - 트위터의 140자 글자 제한은 가장 낮은 수준의 플랫폼인 피쳐폰에서도 문자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설정
-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시작하여 부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
- 스크린 크기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PC의 시스템을 모바일에 무리하게 강요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함

- 기술 구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

□ 그러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모바일 시장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부상

- 고유의 GPS 기능을 이용한 표적시장 선정은 모바일 마케팅의 큰 장점이지만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음
- 또한 신생 플랫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, 추후 사이버 범죄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

□ 하지만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바일 시장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될 것

-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은 현재도 확대되고 있음
- 분야를 막론하고 각 기업들에게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
- 먼 미래에는 모바일이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유일한 소통 채널이 될 전망 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한결 (rocky87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박나현 (nh313131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, 김지연 (jiyeon7303@hanyang.ac.kr), 이창석 (laims2@hanyang.ac.kr)